

004 ☆☆☆

- 수능특강 영어 16강 2번
- 역사언어학
 - : 단일 조상 특성 때문에 언어가 인류 이주 경로에 유전학보다 더 많은 증거 제공!

Historical linguists study the languages spoken today, and from them make estimates about the ancestral languages from which they descended. Where possible, linguists also work from written records on languages in earlier times. For linguistics as for genetics, we assume that present data give us the remnants of earlier communities. [But the definition of "earlier community" is different in each case.] For language, it is assumed that each language has one parent. In genetics a person has more and more ancestors as one goes to earlier generations, while a language has a single ancestor at each stage. The "tree model" of languages presents the range of languages descended from an ancestor, and indicates relationships with other languages descended from the same ancestor. Because of the single-ancestor characteristics of the linguistic "tree model", language gives more evidence on path of early human migration than does genetics, because it < allows for fewer possibilities >.

*remnant 자취, 나머지

- ★
- 출제 예상
 - 어법 / [삽입] / < 빈칸 >

- linguist 언어학자
- make an estimate 추정하다
- ancestral 조상의
- descend 유래하다, 내려오다
- genetics 유전학
- be descended from ~에서 유래되다, ~와 관련되다
-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 path 경로
- migration 이주, 이동
- allow for ~을 허락하다, ~을 가능하게 하다

■ AYDENOTE

역사언어학자들은 현대 언어를 연구하며 이로부터 조상어에 관해 추정(= estimates) 함!
 ↓
 유전학에서처럼 언어학에서도 현재의 자료가 옛날 공동체들의 자취(= remnant)를 제공!
 ↓
 [그러나 '옛날 공동체'의 정의가 서로 다름!]
 ↓
 유전학에서와는 달리 언어는 하나의 조상(= single ancestor)만을 가짐!
 ↓
 언어학적 '가계도 모형'의 단일 조상의 특성(= the single-ancestor characteristics) 때문에 언어는 옛 인류의 이주 경로에 관해 유전학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 함!

역사언어학자들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연구하고,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유래한 조상어(語)에 관해 추정한다. 가능한 상황에서라면, 언어학자들은 또한 옛날의 언어에 관한 기록된 자료로부터 연구하기도 한다. 언어학의 경우(유전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의 자료가 우리에게 옛날 공동체들의 자취를 제공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옛날 공동체'의 정의는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르다. 언어의 경우, 각각의 언어는 하나의 조상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하나의 언어는 각 단계에서 하나의 조상만을 가지는 반면, 유전학의 경우에 한 사람은 더 이전 세대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조상들을 가진다. 언어의 '가계도 모형'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언어들의 범위를 제시해 주고,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 언어학적 '가계도 모형'의 단일 조상의 특성 때문에, 언어는 옛 인류의 이주 경로에 관해 유전학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 주는데, 이는 그것이 더 적은 (다른) 가능성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NOTE

■ 어법

language ~ migration than does(= gives evidence on path of early human migration) genetics
 *대동사 do = 일반동사 대용 vs. be = 상태동사 대용

005 ☆☆

★

■ 출제 예상

어법 / [어휘]

*무관한 문장

■ 수능특강 영어 20강 4번

■ 지질학의 연구 방식

: 이전 시대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

- geologist 지질학자
- perceive 인지하다, 인식하다
- landscape 지형, 풍경
- metaphor 비유, 은유
- medieval 중세의
- scrape off ~을 긁어내다
- document 문서
- inscribe 새기다
- invariably 언제나, 예외 없이
- erasure 지워 없앴, 삭제
- trace 흔적
- illumination 조명, 조도
- era 시대
- persist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다
- discipline 학문, 규율
- optical 광학의, 시각적인
- subsurface 지표 밑

A suitable way to describe **how geologists perceive rocks and landscapes** is the **metaphor of a palimpsest** — the term used by medieval scholars to describe a parchment that was used [more] than once, **with old ink scraped off to [allow] a new document to be inscribed**. Invariably, the erasure was [imperfect], and **traces of the earlier text survived**. These remnants can be read using X-rays and various illumination techniques, and in some cases are the only sources of very ancient documents (including several of the most important writings of Archimedes). **In the same way, everywhere on Earth, traces of earlier eras [persist] in the contours of landforms and the rocks beneath, even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The discipline of geology is [similar] to an [optical] device for seeing the Earth text in all its dimensions. **To think geologically is to hold in the mind's eye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 but also [present] in the [subsurface], what has been and will be.**

*parchment 양피지 **remnant (주로 복수로) 남은 부분, 잔존물 ***contour 윤곽, 등고선

■ AYDENOTE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인지하는 방식

: 새로운 문서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이전의 잉크를 긁어낸 채로, 한 번 [이상(= more)] 사용된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palimpsest'와 비유

↓

지우는 것은 [불완전(= imperfect)]했으며 **이전 글의 흔적이 남음(= traces of the earlier text survived)!**

↓

같은 방식으로 **이전 시대의 흔적들(= traces of earlier eras)**이 지형의 윤곽과 그 밑에 있는 암석에 **남아 있음(= persist)!**

↓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표면 아래(= subsurface)에 존재하는(= present) 것을 마음의 눈에 담는 것이다!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인지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적절한 방법은, 새로운 문서가 새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전의 잉크를 긁어낸 채로,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 중세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인 'palimpsest'와의 비유이다. 언제나, 지워 없애는 것은 불완전했고 이전 글의 흔적이 남았다. 이 남은 부분들은 엑스레이와 다양한 조명 기술을 사용해 읽을 수 있는 데, 몇몇 경우에는 이것들이 (아르키메데스의 가장 중요한 저작물 몇 개를 포함해서) 매우 오래된 문서의 유일한 자료이다. 같은 방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을 때에도, 이전 시대의 흔적들이 지형의 윤곽과 그 밑에 있는 암석에 남아 있다.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지구라는 문서를 모든 차원에서 바라보기 위한 광학 장치와 유사하다.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앞으로 그럴 것들을 마음의 눈에 담는 것이다.

NOTE

■ 어법

with old ink scraped off / to allow a new document to be inscribed

*분사구문 with + 목적어 old ink + 과거분사 / to부정사구 : ~하기 위해

⑤ To think geologically ④ is ③ [to hold / in the mind's eye / {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 **but also present** in the subsurface } ~

*what is에 visible ~ 과 present ~가 연결되는 구조!

006 ☆☆

- 수능특강 영어 22강 1번
- 오류가 많은 이야기와 맞서는 과학
: 쉬운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제거하여 가공하지 않은 사실만을 남김!

The people who came before you invented science because your natural way of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what you experience is terrible. When you have zero evidence, every assumption is basically equal. You prefer to see causes rather than effects, signals in the noise, patterns in the randomness. You prefer easy-to-understand stories, and thus turn everything in life into a narrative so that complicated problems become easy. [Scientists work to remove the narrative, to boil it away, leaving behind only the raw facts.] Those data sit there, naked and exposed, so they can be reflected upon and rearranged by each new visitor. Scientists and laypeople will conjure up new stories using the data, and they will argue, but the data will not budge. They may not even make sense for a hundred years or more, but thanks to the scientific method, the stories, full of biases and fallacies, will crash against the facts and recede into history.

*conjure up ~을 생각해 내다 **budge 조금 움직이다 ***recede (서서히) 물러나다

■ AYDENOTE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야기(= narrative)로 전환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증발시켜 가공하지 않은 사실만을 남김(= leaving behind only the raw facts)!]



이러한 자료(= 가공하지 않은 사실 = 문장 삽입 단서)는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재조정 될 수 있음(= can be reflected upon and rearranged by each new visitor)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논쟁을 벌여도 자료(= 가공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 없음(= will not budge)!



(결국 과학으로 인해) 이야기는 사라지고(= recede) 사실만 남게 됨!

여러분 이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형편없기 때문에 과학을 발명했다. 증거가 없을 때, 모든 추정은 기본적으로 같다. 여러분은 결과보다는 원인을, 소음 속에서 신호를,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서, 복잡한 문제가 쉬워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전환한다.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제거하려고, 즉 그것을 증발시켜 오로지 가공하지 않은 사실만 남기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로 있어서 매번 새로운 방문자들에 의해 숙고되고 재조정될 수 있다. 과학자들과 비전문가들은 그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해 낼 것이고, 그들은 논쟁을 벌이겠지만, 그 자료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심지어 백 년 이상이 지나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 방법 덕분에, 편견과 오류로 가득 찬 그 이야기들은 사실과 충돌하고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물러난다.

- ★
- 출제 예상
빈칸 / [삽입]

- assumption 추정, 가정
- randomness 무작위
- narrative 이야기
- boil ~ away ~을 끓여서 없애다
- raw 가공하지 않은
- reflect upon ~을 숙고하다
- rearrange 재조정하다
- layperson 비전문가 (pl. laypeople)
- bias 편견
- fallacy 오류
- crash 충돌하다

NOTE